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10월 뉴스레터 vol. 36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협동조합도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우고 비우고 애도에 관하여

장례 후기 친구의 새로운 여행길이 가볍기를

특별 기고 내 어머니 간병일기

숫자로 보는 채비 웰다잉 교육 이용 의향

채비 학교 채비강좌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협동조합도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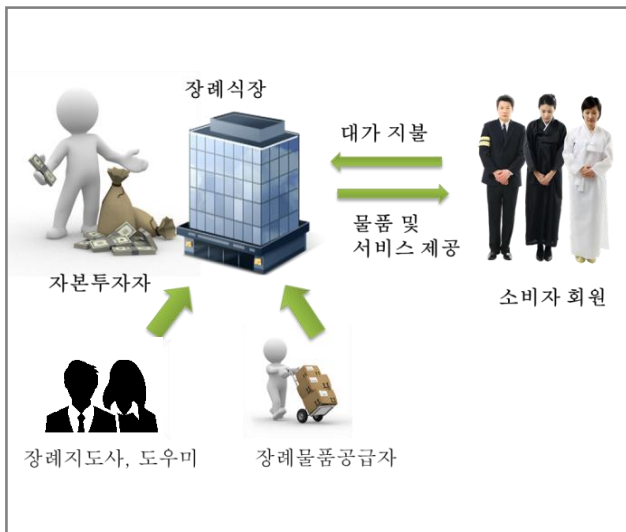
연합회 사무국 상담 전문가 ‘쭈야(별명)’는 늘 통화 중입니다. 가입상담이 잘 된 날엔 목소리 톤이 높아지지만 탈퇴 문의가 있는 날은 금세 풀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날 전화는 좀 심각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얼마나 큰 지 수화기 밖으로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탈퇴할 때 왜 전액을 다 환급 안 해줍니까? 다 준다고 해놓고? 적립했다고 별도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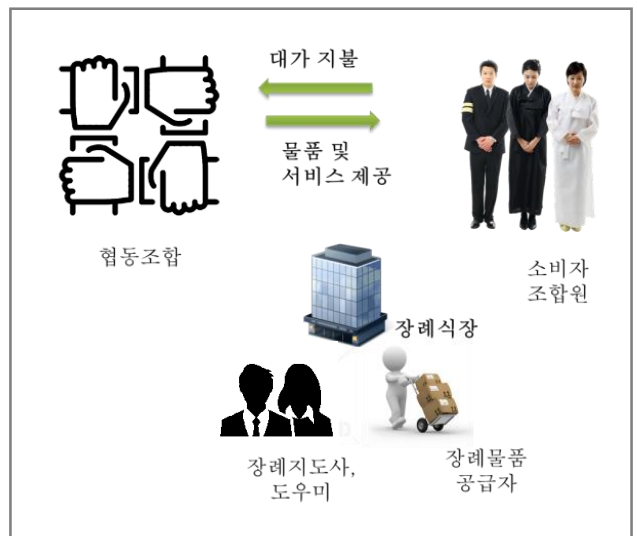
아마 이 조합원은 세상사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고, 특히 상조회사들의 속임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상조회사들은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대형 텔레비전을 준다고 선전하지만 알고 보면 ‘주는 게’ 아니라 할부로 ‘팔아먹는’ 것이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탈퇴하면 해약 페널티를 물립니다. 2018년 한해 동안 76개 대형 상조회사가 조합원 해약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577억원이나 됩니다. 이 중 대형 상조 21개사 합계가 411억이니 한 회사 당 일 년에 20억씩 챙긴 셈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림] 일반 상조회사 사업 구조



[그림] 협동조합형 상조회사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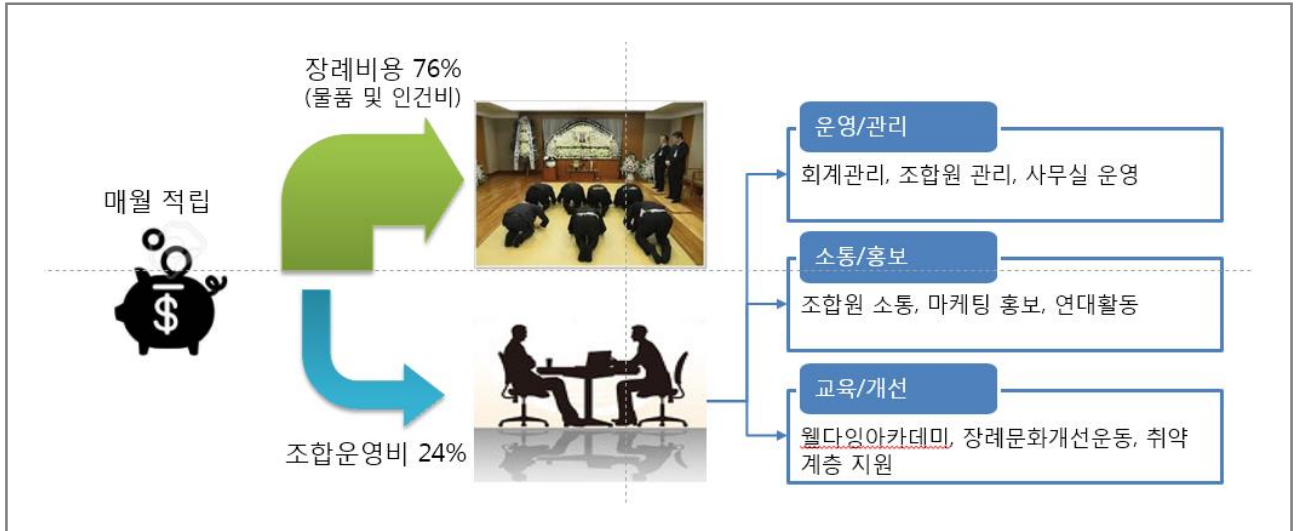
상조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물품을 사서 상주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장례지도사나 물품 공급자에게 적게 줄수록, 상주에게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을 키우려고 상주의 약점을 파고드는 온갖 꼼수와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소비자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게 바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직접 회사를 설립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정직하고 추모가 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들을 전국에서 찾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낸 ‘피 같은 돈’이 제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꼼꼼히 관리하고, 가입탈퇴 처리를 하며 회계감사, 법인 공증, 등록 등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지요. 이 뿐입니다.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내고, ‘웰다잉 아카데미’를 열어 조합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채비’해 드려야지요, 돈이 없어 장례 치르기 어려운 분들 장례도 치러드려야지요, 장례문화 개선 활동도 해야 하지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무슨 돈으로 누가 하고 있을까요. 각 지역에는 급여를 받는 상근자와 조합원들이 선출한 비상근 이사와 감사가 있어 이 일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9개 지역 조합의 사업 연합체인 연합회에도 상근직원 5명과 비상근 회장, 감사, 이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의무를 집니다. 여러분이 장례 발생에 대비해 매월 적립하는 3만 원은 물품과 서비스 대금(76%), 조합비(24%)로 나누어 예치하는데, 이 24% 조합비가 바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 중도에 탈퇴하신 분들에게겐 죄송하지만 24%를 공제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적립금 사용 구조



상근자나 비상근 활동가도 여러분의 동료 조합원입니다. 복마전인 상조시장을 투명하게 바꾸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적은 급여와 활동비, 심지어 무급으로 일하는 협동조합 운동가들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거나 잘못된 일은 꼭꼭 집어서 지적하더라도 잘 모른 채 마구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대신 거친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하자는 마음 한 조각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 편지 읽은 김에 오랜만에 회원조합 활동가들에게 문자 한 통 보냅니다.

“맑은 가을하늘 같은 그대여, 수고가 참 많아~”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우리 조합 알기 캠페인 3탄

“소속 조합 상근자 및 이사장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참여하기

애도에 관하여

나는 애도하는 일이 어렵다. 번번이 낯설고 어색하다. 조문을 해야 하는 대상인지, 언제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조문할지 늘 결정이 힘들다. 업(業)에 종사하면서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그다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조문 전, 미리 고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상주에게 건넬 위로의 말을 준비하지만, 막상 조문을 마친 후 영 개운치가 않다. 회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점점 업자(?)의 마인드가 돼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작부터 그랬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애도는 대학 선배의 모친상이었다. 10대의 끝에서 만난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어리둥절했다. 그때까지 죽음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조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군 복무 중 상을 당한 선배는 집에 빈소를 차렸고, 내가 찾았을 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나마 명절 때 차례를 지낸 경험이 있었던 나는 대충 고인의 영정 앞에 엎어져 두 번 큰절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나는 상주와 맞절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 만 상주의 절을 받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죽음이었지만 결코 피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반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만났다. 아마 내가 기억하는 죽음보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죽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부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놀랍고,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진정한 애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족의 슬픔을 덜고 위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던 죽음은 어머니였다. 아버지 때는 그보다 덜 슬펐던 것 같다. 장인 장모도 상실감은 있었지만 큰 슬픔 없이 떠나 보냈다. 타인의 죽음은 어떨까 유독 또렷이 떠오르는 죽음이 둘 있다. 두 분 다, 나는 고인을 알지 못하고 유족만을 알뿐이다.

15년 전쯤이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가 상을 당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연이 기막혔다. 그 후배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한다.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받은 것이다. 조문을 갔는데 두 모녀만 달랑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빈소가 그렇게 커 보일 수 없었고, 모녀의 모습이 참으로 처연했다. 나는 아무 얘기도 꺼내지 못한 채,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

5년 전쯤 일이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경남 김해의 작은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다. 유족이라곤 남매와 손자 둘이었다. 어머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 앞에서 장성한 남매는 넋을 잃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상주의 손을 마주 잡거나 등을 쓸어주었다.

나는 이때,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을 마주한 유족의 슬픔에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 같다. 그리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다. 형식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았고, 진심을 다해 위로했던 것 같다. 애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 어렵듯이 짐작해 본다.

제140회 나오키 상을 수상한 텐도 아라타는 장편소설 〈애도하는 사람〉에서 슬픔을 빨리 극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상실’이란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을 통해 살펴본다. 작가는 “제가 칠 년에 걸쳐 쓴 이 작품은 지금 이 세상에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사카쓰키 시즈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애도한다.

“...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 공중에 떠다니는 뭔가를 잡는 듯하더니 가숨께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는 대지의 숨결을 퍼 올리거나 하듯이 왼손을 땅에 닿을락 말락 하게 내렸다가 가숨께로 가져가 오른손에 포갰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뭔가를 외우는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내가 저토록 거룩한 방식의 몸짓을 흉내 낼 수는 없겠지만, 고개 숙여 묵상하고, 절을 올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종교의식이 왜 생겨났겠는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 다만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애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죽음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애도하는 사람’은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물음을 던졌다. 그(녀)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누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그가 수많은 타인의 죽음을 찾아 다니면서 얻어낸 애도의 방법이었다. 설사 죽은 이가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낱 같은 희망으로 예의 세 가지 물음을 던졌다. 세상에 사랑 받고, 사랑하고, 감사를 표하지 못할 삶은 없다는 뜻은 아닐까.

얼마 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성숙한 것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참다운 문명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누군가를 한 생명으로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포기해서는 안 될 최후의 의식이다. 전쟁 중에도 부상당한, 심지어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지켜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고인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가 우리와 함께 호흡했던 귀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야 자신의 죽음까지도 유예할 수 있거나 영생할 것이라 착각하는 이 오만하고 폭력적인 문명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애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명이 좋은 세상이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친구의 새로운 여행길이 가볍기를...

"아빠는 저의 세상입니다. 이제 세상의 문이 닫혔어요. 어떡해요."

고인이 된 제 친구의 딸 다숨이는 공항에서 그리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제 한 몸도 가누기 힘든 왜소한 사람이었지만, 다숨이에게는 큰 세상이고 전부였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다숨이는 아빠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지 못할까, 혹여 아빠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면 당연한 권리임에도 멀게만 느껴졌던,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내 친구 재신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밝히는 다숨이의 손을 놓아도 이제 덜 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그리울 이 세상이, 사랑하는 다숨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와 서울조합 식구들의 마음이 친구의 어깨를 조금은 홀가분하게 해 주셨습니다.
재신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친구 재신이가,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담배와 술을 혼자서도 맘껏 하고 있을 친구를 그려봅니다. ✨

김구현 |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임재신 님의 장례는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180만원을 지원하고, 고인의 지인인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조합원 이명재가 본인의 적립금 95만원을 사용해 유족 부담 없이 치렀습니다.



내 어머니 간병일기

11.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병원 가셔야죠 어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가기 싫다.”

방사선과 항암치료가 함께 있는 날. 방사선은 매일, 항암은 주 1회. 날마다 전쟁이다. 수술은 잘 끝났으나 이미 임파선과 머리 쪽으로 전이가 진행 중이라 추가 치료가 필요했다. 주변의 의견은 찬반이 비슷했다. 어찌해야 할까? 무조건 수술 후 한 달 안에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주치의. 수술 직후 몸무게 38kg, 한 가지만 받기에도 체력이 안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니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친분 있는 한방 양방 의사들, 암 치료 경험자들의 의견을 듣고도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니 한번 받아보자.”

처음에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던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셨는지 받으시겠다고 해서 그리 결정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에 사인도 하셨다. 3주 차 항암 방사선. 그동안은 힘겹게 잘 버텸주셨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 그만 받고 싶다 하신다. 물 한 모금 삼키기도 고통스러우시니 왜 아니겠는가.

오늘도 치료를 안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신다. 병원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끈을 놓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약간의 구토기와 음식 먹기 힘들어하는 것 빼고는 그나마 큰 부작용이 보이지 않으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조금 더 살면 뭐 한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갈란다. 이제 보내주라.”
“저도 얼른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통 없는 세상에. 조금 더 산다고 인생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별 의미 없죠. 그래도 어머니는 더 사셔야 해요.”
“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도 내세나 다음 생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인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사셔야 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다신 볼 수 없잖아요. 이제 작별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니까 무조건 더 사셔야 해요.”

잠깐 생각에 잠기셨던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살아야겠다. 얼른 병원 가자.”

이렇게 또 하루의 전투가 시작된다.
(2020. 3. 31)

8. 어미를 기르다

아침, 어머니에게 드릴 바지락탕을 끓였다. 바지락은 봄이 제철이다. 봄 바지락은 달다. 봄 바지락은 아무 양념이나 첨가 없이 바지락만 끓여야 한다. 그래야 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제맛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 국물은 감미롭고 살은 통통하니 고소하다.

이 좋은 봄 바지락탕도 안 드시겠다는 어머니를 어렵게 설득해 허락을 받아냈다. 항암 방사선을 하시면서 늘 구토를 달고 사시니 냄새에 특히 민감하시다. 고기도, 생선도 조개도, 향이 짙은 음식은 다 거부하신다.

입맛이 없으니 매 끼니 새로운 미음과 새로운 국물을 만들어야 한다. 현미와 곡물 불린 것, 두부, 야채, 과일 등이 주원료다. 요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 모든 재료를 믹서로 갈아서 유동식으로 끓여드리니 그 맛이 그 맛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기도 생선류도 사용할 수 없으니 매번 다른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

어머니가 기껏 만든 음식을 맛없어 못 먹겠다 하시면 군말 없이 바로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음식을 해드린다. 그러면 못내 드신다. 아깝고 미안한 마음에서 일터다. 그렇게라도 드시게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바지락 국과 야채 영양 수프를 끓였다. 현미를 하루 동안 불렸다 갈고 녹두가루 표고버섯가루에 잣과 양파와 대파와 토마토를 또 갈아 넣고 죽염으로 간을 해서 푹 끓였다. 토마토와 대파를 넣어서인지 수프가 상큼하니 맛있다. 어머니 덕분에 나도 맛난 수프를 한 그릇 비웠다.

바다 것은 다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던 어머니가 오늘 봄 바지락 국물은 시원하다며 달게 드신다. 고맙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부터 어미가 돼보지 않고도 어미의 심정을 조금은 알듯하다. 아이가 몸에 좋지만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다. 양로, 양육의 기쁨. (2020. 4. 5)

강제운 | 시인

* 뉴스레터 채비는 강제운 시인의 허락을 받아 그의 ‘간병일기’를 편집해 4회(35~38호)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문은 <https://url.kr/SWxB9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데이비드 재럿 | 월북

괜찮은 죽음'을 말하는 슬프고도 유쾌한 문장들.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 모든 죽음은 무너지는 아픔과 깊은 슬픔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책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180도 바꾸는 문장으로 가득하다. 비애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주인공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죽음을 함께한 데이비드 재럿 박사다.

그는 병원에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주로 돌보는 노인 의학 전문의로서, 삶의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더 가까운 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필연의 미래다. 질병, 노화, 치매, 자살, 돌연사 등 시종일관 죽음을 얘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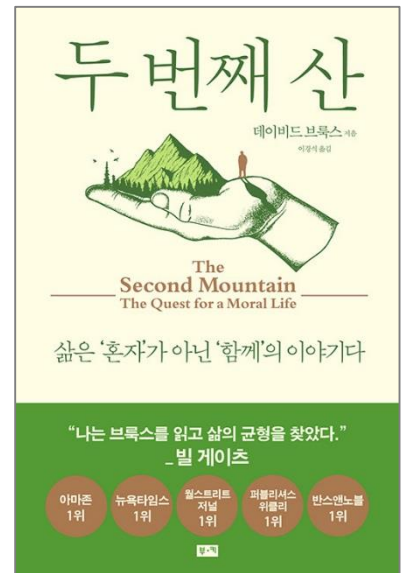
만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사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전한다. 삶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죽음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이다. 저자는 금기시되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사회가, 개인이 이제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죽음을 많이 말하는 사회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전하는 '33가지 죽음 수업'은 생생하고 현장감이 넘친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은 가장 훌륭한 명상이 된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두 번째 산

데이비드 브룩스 | 부키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기는 찾아온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부와 명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위안과 회복이 되어 주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과도하게 움츠러든다. 이들은 겁에 질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리하여 인생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외로워진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용기를 내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자기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규정된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겪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한다고 말한다.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익히려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넘어 도덕적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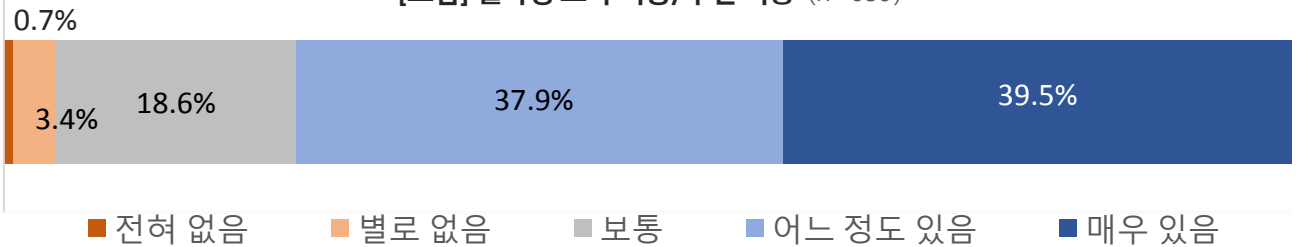
1

웰다잉 교육 이용/추천 의향

‘웰다잉 교육 받고 싶다’ 77.4%

- 웰다잉 교육에 대한 이용 또는 추천 의향에 대해 77.4%가 의향이 있다(매우 있음+어느 정도 있음 합계 비율)고 응답하여 10명중 8명은 웰다잉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웰다잉 교육 이용/추천 의향 (n=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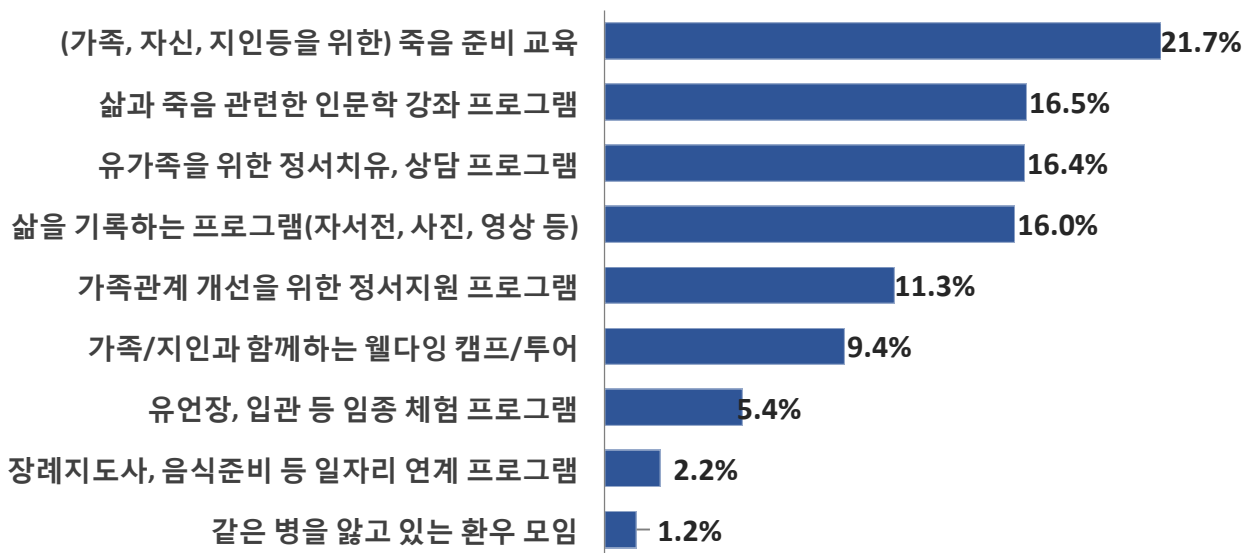
2

웰다잉 프로그램 선호도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받고 싶다’ 21.7%

- 가장 받고 싶은 교육 내용으로 가족, 자신, 지인 등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삶과 죽음 관련한 인문학 강좌’, ‘유가족을 위한 정서 치유, 상담 프로그램’,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그림] 웰다잉 프로그램 선호도 (중복응답, n=659)



*자료출처: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외 6개 협동조합 공동 조사.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9명. 2020)

채우고 비우는 채비 강좌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임은 작아지고 대면 대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소비 패턴과 관심 분야는 물론 장례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3일장을 1일장 혹은 무빈소 장례로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규모 문상객이 아닌 가족이나 소수 지인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전 장례도 관심이 많아졌고 부모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 고비용의 장례, 노동 시장의 변화와 중증 질환, 예측 불허의 사고 등으로 삶을 잘 마무리 하고자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생전 기록은 물론 유산 정리, 장례식 계획 등에 대한 가족간 이해와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채비학교의 강좌는 이런 욕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채비강좌를 통해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 수강안내

1. 대상: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현재 삶을 잘 설계하고자 하는 분,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을 설계하고자 하는 분
2. 일정: 2020년 10월 23일~11월 18일
3. 장소: 공간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4. 수강인원 : 총 6강, 회차 별 15명 (온라인 실시간 강의 중계 수강인원 무제한)
5. 기타:
 - 본 강의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합니다. 접속 주소는 사전 신청자 및 조합원에게 당일 문자로 발송예정입니다.
 - 참석자에게는 채비 노트 두 권을 드립니다. (착불 우편 수령 가능)
 - 강의 진행은 강사가 준비한 내용 및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질문은 온라인 수강신청양식 또는 master@handurae.org 로 보내주세요 (질문 채택자 소정 상품 증정)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6. 문의 02-722-9517



■ 프로그램

회차	일정	주제	내용	강사
1	10월 23일 (금) 15:00~17:00	협동조합과 장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협동조합 장례의 이해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조합원이 할 일 • 협동조합 조직역량 강화와 활성화 방안 	김상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비장례란? / 의식은 간소하고 추모의 마음을 더하는 장례 설계법 	김경환
2	10월 30일 (금) 15:00~17:00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 뒤에 있을 소소한 행정 처리에 관한 채비 • 애도의 과정으로서 추모식 구성과 진행, 사전 준비사항 	박태호
3	10월 28일 (수) 18:30~20:30	감사를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비노트에 기록하는 감사일지 •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감사법 • 17가지 키워드를 통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자기 훈련법 	정지환
4	11월 4일(수) 18:30~20:30	나를 알아가는 심리 여행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비노트에 기록하는 ‘나 사용법 설명서’ • 나의 기원을 찾는, 여행탄생의 신비 •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성향/ 심리적 유산과 자원 활용하기 	황왕호
5	11월 12일 (목) 18:30~20:30	내몸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비노트에 기록하는 내 몸 일기와 이해하기 • 나이듦에 대하여(건강 개념과 상식) •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 일상 케어/ 질환 별 식이요법 바로 알기/ 부모님 돌보기 	배한호
6	11월 18일 (수) 18:30~20:30	재산 정리와 처분에 관한 상속, 증여, 세무의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비 노트에 재산 정리, 유산 상속 등의 목록정리하기 • 부모님 사후 재산 상속, 증여, 세금 처리/ 재산 분쟁을 방지하는 사전 재산정리 요령/ 죽음 전 자신의 재산을 정리법 • 조합원을 위한 기본적인 세무 상식 	유종오

■ 강사 프로필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회장, 컨설턴트
- 김경환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작가
-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 정지환 : 감사경영연구소 소장·객원교수
- 황왕호 : 통합심리학& 무의식적 기제 연구/ AI 알고리즘 개발/ 주)데이타팜 대표이사
- 배한호 : 배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학박사
- 유종오 : 공인회계사, 인성회계법인 부대표,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수강 신청하기 (개별 회차 신청 가능)

[채비학교 x 공간채비] ‘내 몸 바르게 사용하기’ 온/오프 동시 강좌 진행



지난 9월 18일, 공간채비에서는 배한호 한의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채비학교 특강을 온오프 동시강좌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환경에 맞추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을 준비하여 큰 방송사고 없이 무사히 첫 송출을 마쳤습니다

한겨레두레는 코로나19시대에 맞서 오늘도 한발자국 전진합니다

배한호 한의사님의 명불허전 명강의!

다시보기로 그날의 생동감 있었던 현장을 확인하세요

강의 다시 보기 <https://youtu.be/e1tzQ5zWapQ?t=1722>

[언론보도자료] “의식은 간소·추모는 깊은 장례 추구”



중구 충무로 남산 북쪽 자락 동네의 한 상가 건물 2층. 단독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순식간에 시야가 확 트인다. 잔디밭 옆 나무 데크 길을 따라 걸어가면 갤러리 카페 같은 통유리의 공간을 만난다. 50여 평 실내는 작은 공연장 같다. 꽃장식의 연단과 함께 한쪽 벽면엔 사진작품이 전시돼 있다. 입구 쪽엔 대형 원형 시계가 안팎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뒤편에는 작은 회의실과 카페 시설을 갖췄다. 상조업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한겨레두레가 이번 여름에 문을 연 복합추모공간 ‘채비’의 모습이다.

중구 충무로 남산 북쪽 자락 동네의 한 상가 건물 2층. 단독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순식간에 시야가 확 트인다. 잔디밭 옆 나무 데크 길을 따라 걸어가면 갤러리 카페 같은 통유리의 공간을 만난다. 50여 평 실내는 작은 공연장 같다. 꽃장식의 연단과 함께 한쪽 벽면엔 사진작품이 전시돼 있다. 입구 쪽엔 대형 원형 시계가 안팎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뒤편에는 작은 회의실과 카페 시설을 갖췄다. 상조업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한겨레두레가 이번 여름에 문을 연 복합추모공간 ‘채비’의 모습이다.

9일 오전 〈서울&〉과 만난 김상현(60)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겨레두레)연합회 회장은 공간 채비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채비를 “삶과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기획했다”고 했다. 추모식과 더불어 조합원 모임과 행사,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이뤄졌다. 생활공간에 어울리도록 밝게 꾸며 혐오감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게 했다.

한겨레두레는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달려왔다. 그간 넘어지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회원 조합 9곳과 연합회가 있으며 조합원은 3500명이다. 그간 1500건의 장례를 치렀다. 무연고 고독사 등 저소득층 장례지원 봉사도 이어왔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례용품 원가를 공개하고 직거래 공동구매로 장례비용을 낮췄다. 뒷돈은 받지 않고, 납골당 등 리베이트는 조합원에게 되돌려준다. 김 회장은 “초기엔 한겨레두레 장례지도사들을 내쫓는 장례식장도 있었고, 이단아로 취급받기도 했다”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 한계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2015년 한겨레두레는 장례문화 변화를 끌어낼 새로운 장례 서비스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프리랜서 등 사회적관계망이 약한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변화에 주목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2013년 은퇴한 김 회장 주변에도 조문객 수를 걱정하는 지인이 적잖다. 그의 아내 역시 전업주부인 딸만 있는 부모의 장례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조합원 설문조사 등으로 조문객 수 걱정 없이 추모와 애도, 위로가 있는 장례 서비스를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지난해 무빈소 가족장, 1일 가족장, 삼일장에 추모식을 더해 상품을 구성하고 사업을 계획했다. 서비스 이름은 조합원 공모로 채비로 정했다. ‘미리 갖춰 준비하는 일’과 ‘채우고 비운다’는 의미의 중의적 표현이다. 추모형 작은장례로 콘셉트를 정하고 보니 가장 큰 걸림돌은 공간 문제였다. 김 회장은 “작은장례는 일반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받기 어렵고, 화환이 쭉 늘어선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을 치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무빈소 장례 공간이 있는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특실 사이 자투리 공간이라 추모식을 하기 어렵다.

“‘의식은 간소하게, 추모는 깊이 있게’를 말로만 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에 직접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지난 7월 충무로에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급 매장) 형태로 복합추모공간을 열었다. 공간 이름은 서비스 이름 ‘채비’를 그대로 썼다.

김 회장은 작은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장례업체들과 채비의 차별점으로 추모식 프로그램을 꼽았다. 채비의 추모식은 추도사, 추모 영상 애도사, 고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쓴 ‘메모리얼 포스트’ 등의 순서로 80~100분가량 장례지도사 사회로 진행된다. 온라인 영상 제공으로 추모식에 참석 못 하는 가족도 함께할 수 있다.

예컨대 무빈소 가족장의 경우, 돌아가신 첫날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가족끼리 집에서 사진과 유품을 정리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오후 장례지도사가 연습하고, 저녁에 추모공간에서 식을 연다. 다음날 발인이 이뤄진다. 김 회장은 고인을 추억할 게 특별히 없다고 걱정하고 주저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관계가 소원했던 가족이라도 기억과 추억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 회장은 은퇴 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엔 경영지식 나눔 활동도 한다. 친구 소개로 한겨레두레 조합원이 되었다. 조합의 경영 자문부터 시작해 서울조합 이사장, 그리고 연합회 회장까지 맡게 됐다. 그사이 사진 교실에서 사진 찍기를 배워 무연고자 영정사진 봉사를 해왔다. 채비 프로그램 강의도 한다. 그는 장례문화 변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합으로 키우고 싶은 꿈을 꾸며 조합원 3만 명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http://www.seoul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7317.html

채비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1. 온라인 부고

온라인 부고

채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부고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된 링크를 지인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부고장 작성

고인명

상주명

임종일자

연도-월-일

발인일자

연도-월-일

선택

선택

장례식장

장지

계좌번호

메모

영정사진

찾아보기

메시지 만들기



채비 홈페이지에 ‘온라인 부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상에서 부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온라인 부고 url: <http://www.chaebi.life/introduce/online>

채비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2. 조합원 가입 안내

한겨레두레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장래업계 전반에 안전한 폭리와 리베이트, 기존 상조시장의 폐해
 보통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균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경쟁'을 통해 품질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상조시장입니다.

장래는 갑자기 덩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래비용,장래용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문데다가
 슬픔에 빠져야 할 상주가 가격을 흥정하거나 합리성을 따지는 일도 금기가 되거나
 경향이 없는 틈을 타 상조회사들은 폭리와 리베이트를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시작과 운영
 불뽕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래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선수금의 50%를 안전하게 예치하고 맞춤형 장래와 직거래공동구매로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 맞춤형 직거래 공동구매로 모든 장래물품을 원가로 제공하고,형편에 맞는 맞춤형 장래로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 같은 조합원인 장래지도사와 절경도우미 등 일꾼들은 유족의 상징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오임의 정신을 담아 온택한 상조시장의 폭리구조와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애 조합원이 안심하고 장래를 지르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작은장래
 갈수록 고비용화·대형화·독과점화 하는 상업화된 장래 시스템에서 벗어나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대안의 공간에서 3일장 이외에
 1일 가족장,무빈소 가족장 등 고인을 길이 있게 추모할 수 있는 '추모형 작은장래'를 실현하고 확산합니다.
 형식은 줄여도 추모의 깊이를 더할 추모식 프로그램과 온라인추모식을 운영합니다.

장래문화 개선과 선도
 우리 조합은 지난 10년간 홀몸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고 생애구술사를 기록하고,저소득층 장례를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리영희 선생,김근태 전 장관,장준하 선생,백남기 농민 등 민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민주사회장을 지러왔습니다.우리 조합의 나침반은 공동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지원 외 친환경 장례,성 평등 장례 등 장래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직은 적지만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겨레두레의 행보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가입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상담 받아보기

궁금한 사항을 편하신 시간에
상담 받아보세요

조합원 가입 안내 및 상담 받아보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가입신청서‘ 메뉴에서는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폼을 간소화하였고,
 ‘상담 받아보기’는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
 아볼 수 있는 신청 기능입니다.

한겨레두레를 소개해주고 싶은 지인에게 아래 링크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 안내 url: <http://www.chaebi.life/invitation>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9월

이재경 조합원 부친상
이주연 조합원 시부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이상덕 조합원 모친상
최영선 조합원 모친상

김인철 조합원 배우자상
백찬홍 조합원 모친상

8월

이혜숙 조합원 시부상
박종훈 조합원 빙모상
이광표 조합원 모친상
황윤길 조합원 모친상

노경훈 조합원 부친상
김광호 조합원 부친상
유기창 조합원 빙모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신임숙 조합원 시모상
이윤기 조합원 자녀상
이계령 조합원 모친상

7월

백종철 조합원 빙모상
김홍식 조합원 모친상
김진영 조합원 부친상
김재수 조합원 빙부상
이기상 조합원 부친상
정웅교 조합원 부친상

문선유 조합원 아우상
김기성 조합원 부친상
이수자 조합원 모친상
장성모 조합원 모친상
김정주 조합원 빙모상
신상희 조합원 모친상

김윤원 조합원 모친상
염규홍 조합원 부친상
박갑주 조합원 모친상
김상남 조합원 부친상
김명희 조합원 배우자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다운로드

제 32호 |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다운로드

제 33호 |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다운로드

제 34호 |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다운로드

제 35호 | [24%의 기적]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채우고 비우고]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장례 후기]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다운로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